

Oozing

Islands in Islands

雨徵

섬 안의 섬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요

Oozing

Islands in Islands

雨徵

섬 안의 섬

제주 동쪽 바닷가 옆 작은 마을 하도리에 위치한 예술 공간 언러닝스페이스는 전시, 퍼포먼스, 워크숍, 토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우징: 섬 안의 섬 Oozing 雨徵: Islands in Islands>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제주를 이루는 다공성의 화산석은 폭우가 쏟아져도 이를 모두 빠르게 지하로 투과시킨다. 그래서 예로부터 제주에는 물이 귀했고, 우징(雨徵, 비가 올 징조)은 길한 징조였다. 바닷물은 아무리 많아도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제주를 둘러싼 심해는 오래도록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해녀들은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잠수해서 바다와 대기가 허락하는 만큼의 해산물을 수확한다. 그러한 균형 감각과 생태계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습관은 근대화된 사회에서 아주 드물게 유지되는 것들이다.

물론 제주에서 물의 의미도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빠르게 변화했다. 대규모 댐과 정수 시설을 건설하고 물을 다스리게 되면서 현대인은 자연 상태의 물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은 불쾌하며 비위생적인 젖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물질적인 구조의 건설은 여타 다른 생명들과 뒤섞여 존재하는 상태에서부터 자신을 분리해 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재조립하는 정신적 구조의 성립과 서로를 견인했다.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을 상시로 공급받고 하수 시설로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는 대부분 주민과 여행객들에게 이제 비는 귀찮고 실망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제주에는 이와 같은 근대화된 세계에 적응한 사람들, 여전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대안적 삶을 찾아온 사람들, 혹은 오히려 국제적인 기업이나 학교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여러 공동체가 혼재되어 있다. 다양한 경로로 정착한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는 경쟁과 휴식, 보호와 개발, 이주와 정착, 삶과 죽음에 대한 제각기 다른 신념들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다. 섬 안의 섬처럼 존재하는 각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적으로 하여 만나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다른 인식 속에서 머무른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의 돌과 물에서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88만 년 전 시작된 화산 활동에서 분출한 용암이 바다와 만나 형성된 제주의 지층은 아직 굳지 않고 물을 머금고 있으며, 해안 곳곳에서 용천수를 내뿜는다. 돌은 물을 투과시키지만, 동시에 이를 자연적으로 정화하여 분출한다. 아스트리다 네이마니스(Astrida Neimanis)에 따르면, 물은 우리가 잉태되고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를 다른 종과 연결하는 물질이다. 우리 종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은 물에서 비롯하였으며, 우리 신체는 점막을 통해 수많은 다른 유기체들과 공생하며 지금도 소멸하는 동시에 생성되는 중이다. 우리가 흡수하고 배설하는 물을 지구의 다른 유기체들도 흡수하고 배설하며, 우리는 같은 양수 안에서 숨 쉬는 존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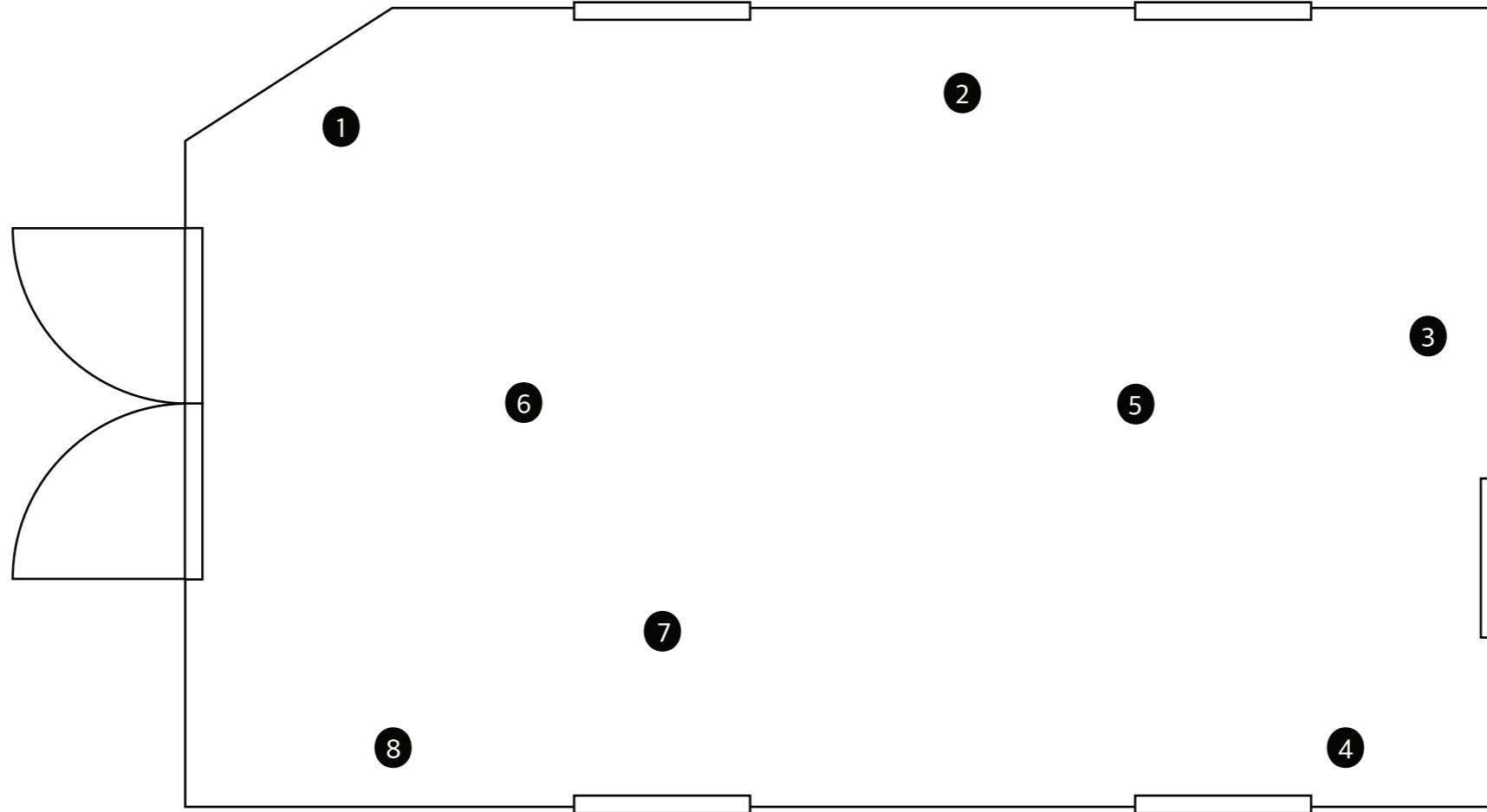
우리는 제주의 돌과 물에서 종과 세대, 각기 다른 세계관, 여러 공동체를 관통하는 만남과 연결을 배우려 한다. <우징: 섬 안의 섬 Oozing 雨徵: Islands in Islands>의 다장르 프로그램과 전시는 섬-공동체를 교차하고 ‘스며 나오며(oozing),’ 그로부터 발생하는 혼종성을 지향한다. 자신 몸속에 살아 숨 쉬는 여러 유기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시각이 아닌 촉각이나 청각을 이용해서 주변을 감각하고, 나아가 다른 종의 감각에서 세상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서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주장하거나 우리 삶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주를 제시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낯선 환경과 세대 간의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만남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세계에 대한 다른 이해에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 혼종적인 상태, 젖은 상태의 자신을 서서히 발견하는 길목을 트며,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 안-사이에 새로운 통로를 내려 한다.

*Astrida Neimanis, *Bodies of Water* (London: Bloomsbury, 2017)
글: 이은수

일시/장소	제목	참여작가	내용
7월 15일 (토) 오후 4-6시 언러닝스페이스 제주시 구좌읍 하도3길 99	사운드 움직임 워크숍 <소리 바다, 소리 탐구, 소리 몸짓>	레지스터 코리아	파트 1. 소리 바다(장희진): 참여자들은 눈을 감고 주변의 생명체와 자연이 내는 소리들을 감각하고, 이를 녹음한다. 수집된 소리들을 함께 듣고 다양한 생각을 나눈다. 파트 2. 소리 탐구(진유영): 소리를 수집했던 장소에서 자연물 2개를 채집한다. 이를 두드리거나 비비는 과정을 통해 물성을 탐구하고 스스로 소리를 발견해 본다. 파트 3. 소리 몸짓(루나): 찾아낸 소리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동작을 상상해 본다.
7월 15일 (토) 오후 6-7시 언러닝스페이스 인근 해녀 창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서문길 10	라이브 사운드 퍼포먼스 <섬이 되기>	레지스터 코리아 (장희진, 루나, 진유영), 타일러 브라운	장희진은 제주에서 발견한 사소한 소리들을 변형하고 쌓는 과정을 통해 관객들이 청각을 이용하여 시공간과 기후,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한다. 타일러 브라운의 전자기타 사운드와 진유영이 워크숍에서 만들어낸 타악기 소리가 여기에 더해진다. 루나는 사운드와 공간, 객석의 분위기에 답하는 즉흥적인 움직임을 선보인다.
8월 19일 (토) 오전 10시-오후1시 언러닝스페이스 제주시 구좌읍 하도3길 99	어린이 워크숍 <몸-경계-협력: 몸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기>	정혜정	아이들이 돌씩 짝을 지어 작가가 직접 제작한 팔, 다리, 혹은 등이 붙어있는 옷을 입고 함께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 현대 사회의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몸의 언어를 통해 서로 친밀감을 표현하고 나와 다른 존재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다. * 대상: 6-10세 사이 (정원 6명)
8월 19일 (토) 오후 5시 언러닝스페이스	커뮤니티 워크숍 <스며들 / 스며나옴>	이유진	“스며들/스며나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물을 들이는 염색과 드로잉 행위로 연결한다.
9월 23일 (토) 오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여성적 글쓰기 워크숍 <물의 말 나누기>	김지승	현직 해녀가 가장 많은 마을 하도리에 사는 여성들과 함께 그들에게 의미있는 사물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눈다. 우리가 가진 제도화된, 건조한 언어와 물 옆의 언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서로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을지 고민한다. *워크숍을 기록한 김지승 작가님의 짧은 에세이가 언러닝 스페이스 웹사이트(링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9월 24일 (일) 오후 3시-5시 언러닝스페이스 제주 구좌읍 하도3길 99	토크 <‘우리’의 경계 / ‘우리’ 안의 흐름>	이연숙(리타) 최혜영 홍이현숙 요이(모더레이터)	가부장적 사회와 시선에 저항하며 비인간 존재와의 공생과 연대를 강조해온 여성주의 미술의 대표 작가 홍이현숙,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연산호 기록을 이어온 평화 활동가 최혜영, 페미니즘, 퀴어,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타자의 관점에서 연결과 소통을 이어온 시각 문화 비평가 이연숙(리타)이 모여 각자 몸담고 있는 ‘우리’의 범위와 경계를 넘나드는 방법을 나눈다.
9월 24일 (일) 오후 6-7시 제주 구좌읍 하도리 일대 야외공간	참여형 퍼포먼스 <바다생물 다라니 집체 낭독>	홍이현숙	참여자들은 원을 그리며 서로 마주본 상태로 바다 생물을 위해 다라니를 읊고 그들의 이름을 호명한다. 바다 생물의 이름을 외치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참여자들은 몸을 직관적으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낀다. 몸짓을 반복하는 사이에 트랜스(무아지경)의 상태로 나아간다.

기획
언러닝스페이스 대표 요이, 루킴, 유은, 이은수
디자인 요이
번역 루킴, 요이, 이은수

주최/주관 언러닝스페이스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① 제인 진 카이젠 <Of The Sea> 2013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분 15초
- ② 요이 <내가 헤엄치는 이유> 2023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34분 36초
- ③ 조은지 <문어적 황홀경> 2019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8분 8초
- ④ 정혜정 <액체인간>, 2021
싱글 채널 비디오, 3D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5분 22초
- ⑤ 루킴, 요이 <우리가 함께 흐르던 그 때는> 2023
사운드 조각: 소리, 화산석, 가변크기, 오디오 루프
- ⑥ 루킴 <눈, 코, 입, 귀, 이마, 턱, 광대뼈, 눈썹> 2021-2023
글, XPS, 레이저 각인 아크릴, 마닐라 삼 밧줄, 가변크기
- ⑦ 유은 <백색 수림들> 2022-2023
글, 폴리에틸렌으로 실뜨기, 가변크기
- ⑧ 정혜정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땀> 2022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분 55초

일시 2023년 7월 15일 - 9월 30일
평일 사전예약제 (네이버 링크)
토,일 오후 2-6시

장소 언러닝스페이스 인근 해녀 창고 공간
제주시 구좌읍 하도서문길 10

참여작가 루킴, 요이, 유은, 정혜정, 제인 진 카이젠, 조은지

<우징 雨徵: 섬 안의 섬>은 금채기동안 쓰이지 않는 해녀 창고 공간을 빌려 진행된다. 영상과 설치 작품들은 해녀들의 노동의 흔적과 바다 냄새로 가득한 공간과 조용하는 동시에 여러 층위의 사회적, 역사적, 지역적 맥락 속에 놓인다. 공간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시각, 청각 뿐 아니라 촉각, 후각 등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세계를 새로운 방식들을 탐구하도록 이끌고, 세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이 놓인 위치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우징 雨徵: 섬 안의 섬>의 참여 작가들은 세대, 중, 공동체를 나누는 경계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방식들을 탐색한다. ① 제인 진 카이젠의 <Of The Sea>는 버려진 테왁(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을 모아 메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쓴 책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을 든 채 울퉁불퉁한 현무암과 그 위를 덮은 이끼들로 이루어진 해안을 걸어가는 작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해안은 1931년 해녀들이 일본군에 맞서 행진했던 곳이기도 하다. 작가는 도시에서의 차림새 그대로인데, 이는 낡은 테왁과 깊은 대비를 이루며 100년에 가까운 세월의 흐름과 일상의 변화를 드러낸다. 높은 굽의 부츠를 신고 이끼 낀 바위 사이를 힘겹게 디디며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돌아다니는 모습은 배경에 흘러나오는 해녀들의 애환을 담은 <해녀의 노래>를 통해 과거의 삶과 어긋나면서 동시에 겹쳐진다.

② 요이의 <내가 헤엄치는 이유>는 도시에서 태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 온 작가가 번아웃을 경험한 이후 제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득해 가는 과정을 편지 형식으로 담은 비디오 에세이이다. 작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헤엄치는 법을 터득하며 제주에서 오랜 시간 물질을 하며 살아온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일손을 도우며, 처음으로 물과 함께 호흡하는 방식을 배운다. 작가의 조심스럽고 진솔한 고백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손 닿는 곳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며,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바다의 이미지는 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탐구로 관람객을 이끈다.

③ 조은지의 <문어적 황홀경>은 모든 아기는 쌍둥이 문어와 함께 태어난다는 인도네시아의 신화에서 착안한다. 약 5억 년 전부터 인간과 거의 반대 방향으로 진화해 온 문어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360도 회전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뇌를 대신하여 8개의 다리-촉수에 달린 빨판으로 세상을 인지한다. <문어적 황홀경>은 문어적 방식으로 세상을 감각하기 위한 여러 방식을 실험한다. 다양한 앵글로 주변을 비추는 카메라는 우리가 평소에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의 한계를 넘어선다. 홀라후프, 명상,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들과 영상 곳곳에 삽입되어 있는 낯선 이미지들은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을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종과의 근원적 연결을 상상하도록 한다.

④ 정혜정의 <액체인간>은 우리 몸 내부에 존재하는 유기체들로 시선을 돌린다. 작가는 '장미색 비강진'이라는 원인불명의 병을 앓으면서 그의 신체 안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작가의 목소리는 분리되었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한다. 액체 속을 유평하는 미시적 존재들은 다른 몸 또는 외부-바다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몸

안의 장기들과 뒤섞여 있는 산호의 형상은 이 연결성을 암시한다. 내레이션이 뫼비우스의 띠를 3차원으로 만든 클라인의 병을 언급할 때, 우리를 다른 종, 물질, 세대를 잇는 순환으로 이끄는 물로 된 아이가 유유히 화면을 가로지른다.

⑤ 요이, 루킴의 <우리가 함께 흐르던 그 때는>은 제주의 마지막 화산폭발과 함께 흐르던 용암이 바다와 만나 형성된 돌들의 대화, 물의 소리, 제주의 소리로 이루어진 사운드 조각 작품이다. 돌의 대화에는 수천 년간 멈춰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토로, 끊임없이 흐르고 이동하는 물의 이동성에 대한 질투, 자신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인간들에 대한 애증의 감정, 화산석의 구멍 안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뒤섞여 담겨 있다. 근처에서 옮겨온 화산석으로 쌓아 올린 정형과 비정형의 조각에서 울리는 인간과 다른 시공간을 점유하는 돌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과 물의 근원과 그것이 우리와 맺어온 관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사유하게 된다.

<우리가 함께 흐르던 그 때는>과 조용하면서 동시에 대비를 이루는 ⑥ 루킴의 설치 작업 <눈, 코, 입, 귀, 이마, 턱, 광대뼈, 눈썹>에서는 한강을 이루는 물들의 대화가 담긴 투명 아크릴 패널을 물에 젖으면 더 질겨지는 속성을 가진 마닐라 삼 밧줄에 매달았다. 제주의 돌들과 대비를 이루는 한강의 물은 의도치 않게 마포대교에서 몸을 던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가 되어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로 사람들의 자살을 오히려 증가시켜 버린 삼성, 서울시, 제일기획의 로고를 거울 이미지로 비춘다.

⑦ 유은의 <백색 수림들>은 우리 지구와 생명체들의 탄생 신화를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작가는 '수림들'이라고 명명한 창조자들의 일렁이는 몸짓과 춤사위가 얽혀 만들어 내는 자가증식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상정한다. 이 생동하는 수림의 신성한 행위들은 텍스트 위에 매달린 플라스틱 폐기물을 엮어 만든 조각과 형식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배치된다. 그러나 쓰레기 속에서 건져 올려진 흰 비닐 그물은 스스로의 비천함을 딛고 세계의 연결망 안에 자신의 자리를 점유하며,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의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작가 자신의 아이와 출산의 경험을 나누는 ⑧ 정혜정의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땀>는 신화와 물, 종과 유기체의 탐색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친숙한 삶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기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출산 경험을 상상으로만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습이 가진 한계와 금기를 넘는다. 전시장을 나서는 관람객들에게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땀>는 실질적 실천과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글: 이은수



Programs

Dates & Location	Title	Artist	Description
July 15th (Sat) 4-6pm Unlearning Space 99, Hado 3-gil, Gujwa-eup, Jeju-si	Sound & Movement Workshop <i>Sounding Sea, Sounding Exploration, Sounding Bodies</i>	RE#SISTER KOREA	Participants sense the sounds produced by the surrounding organisms and nature with their eyes closed and record them. They listen to the collected sounds together and explore their characteristics to discover sounds. Participants give names to the discovered sounds and imagine various movements to express them.
July 15th (Sat) 6-7pm Haenyeo storage near Unlearning Space 10, Hadoseomun-gil, Gujwa-eup, Jeju-si	Live Sound Performance <i>Being An Island</i>	RE#SISTER KOREA (Heejin Jang, Yuyoung Jin, LuNa), Tyler Brown	By transforming and layering the subtle sounds found in Jeju, Heejin Jang allows the audience to use their sense of hearing to imagine space, time, climate, and stories, together with Jin Yuyoung's percussion sounds and LuNa's movements created during the workshop, and Tyler Brown's electronic guitar sounds.
August 19th (Sat) 10am-1pm Unlearning Space 99, Hado 3-gil, Gujwa-eup, Jeju-si	Children's Workshop <i>Collaborating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Body</i>	Haejung Jung	Children (6-10yo) are paired up and wear outfits made by the artist, which have arms, legs, or backs attached. They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together. Through the language of the body, they learn how to express intimacy with each other, break down the boundaries between themselves and others,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August 19th (Sat) 5pm Unlearning Space	Community Workshop <i>Ooze In / Ooze Out</i>	Yujin Lee	Based on the concept of "oozing in / oozing out," this workshop connects the act of dyeing into various forms on fabric with drawing.
September 23th (Sat) Afternoon Hado-ri, Gujwa-eup, Jeju-si	Women's Writing Workshop <i>Sharing Language of Water</i>	Jiseung Kim	Together with women living in the village of Hado-ri, where many female divers live, the artist shares diverse life stories using objects meaningful to them. The workshop contemplates how our formal and dry language can intersect with the language by the water, and how we can foster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ose languages.
September 24th (Sun) 3-5pm Haenyeo storage near Unlearning Space 10, Hadoseomun-gil, Gujwa-eup, Jeju-si	Talk <i>Boundaries of Us, Flows in Us</i>	Yeonsook Lee (Rita), Hyeayoung Choi, Hyun-Sook Hong Lee Moderated by Yo-E Ryou	Feminist artist Hyun-Sook Hong Lee, Jeju peace activist Hyeayoung Choi, and visual culture critic Yeonsook Lee (Rita) come together to discuss what we mean by 'we.' We will collectively question and share fluid ways of interacting and crossing the boundaries of 'us'.
September 24th (Sun) 6-7pm Outdoor Space of Hado-ri, Jeju	Participatory Performance <i>Collective Reading of Scripture for Sea Creatures</i>	Hyun-Sook Hong Lee	The participants stand in the shape of a circle and recite dhārani and name the sea creatures. By calling out the names of marine life and embracing them, the participants intuitively move their bodies and feel the energy that emerges within. Through the repetition of gestures, they enter a state of trance, transcending their normal consciousness.



Project Overview

Islands, in Islands

Located in Hado-ri, a small seaside village on the east coast of Jeju Island, Unlearning Space presents *Oozing* 雨徵: *Islands in Islands*, from July 15th to September 30th, 2023. The project consists of an exhibition and a series of performances, workshops, and artist talk programs.

The porosity of volcanic rocks which comprise the terrain of Jeju Island allows even heavy rainfall to seep immediately beneath the ground. Water has historically been scarce in Jeju, making 우징 [ujing] (a sign of rain) a good omen. The people of Jeju Island could not use the abundant surrounding seawater for drinking or other domestic purposes. Even so, the deep sea surrounding Jeju has long been the lifeline for the island's inhabitants. Jeju Haenyeos, literally translating to 'sea women', dive underwater for the duration of a breath and gather the amount of sea life allowed to them by water and by air. In modernized societies, such habits of living in balance with the environment as part of the ecosystem are rare.

The meaning of water in Jeju has also undergone rapid transformation throughout the path to moderniza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water supply facilities and large-scale dams in attempts to control water, people have developed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on water in its natural state. Humankind has striven to escape the discomfort and uncleanness of wet conditions. The construction of this material structure acceler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deology that separates humans from other forms of coexisting life, to understand and reassemble them as rational and logical subjects. For most residents and tourists these days who get clean water from faucets and dispose of dirty water through drains, rain has become something that is merely bothersome and rather disappointing.

Jeju Island is home to various communities. There are people who have adapted to the modernized social system in Jeju, those who still live according to traditional ways of life, those who have relocated to discover alternative lifestyles, and those who have come seeking more intense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corporations and schools. The boundaries separating the insides and outsides of these communities are more pronounced due to differing beliefs regarding competition and work-life balanc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migration and settlement, and life and death. Each community, existing like an island in an island, resides within their own perception of the world rather than seeking encounters with one another, rooted in understanding.

Yet, we find new possibilities in the volcanic rocks and the water of Jeju. The geological stratum of the island, formed when lava erupted from volcanic activity 1.88 million years ago and collided with the sea, holds water to this day. Water permeates these volcanic rocks, and the rocks purify the water and then release it as spring water in coastal areas. According to Astrida Neimanis, water is the substance that allows for gestation and thus for us to exist as life forms, and that which simultaneously connects humans to other species. All forms of life have come from water, and our bodies continue to be created and to perish while symbiotically coexisting with countless other organisms through our permeable membranes. The water we take in and expel is also absorbed and excreted by other organisms on Earth, making us beings that breathe together within the same amniotic fluid.*

From the volcanic rocks and water of Jeju, we hope to learn about the interactions and connections that traverse species, generations, worldviews, and communities. *Oozing* 雨徵: *Islands in Islands*, with its multi-genre artistic practices and programs, aims to intersect the manifold island-communities and embrace the hybridity that emerges from oozing into, and throughout one another. We invite participants and visitors to become aware of the existence of various organisms living within their own bodies, to sense their surroundings not only visually but also through touch and hearing, and perhaps to perceive the world as other species do. In the process, we try not to fall into the fallacy of claiming a perfect understanding of each other or of promoting Jeju as an ideal alternative to contemporary circumstances. Instead, we listen to each other's stories of unfamiliar environments and generations, and encounter one another, practicing hospitality. By exposing ourselves to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world, we navigate the path of gradually discovering our own wet, hybrid state, and create new passages within and between the boundaries that separate 'me' and 'you'.

*Astrida Neimanis, *Bodies of Water* (London: Bloomsbury, 2017)
 Written by Eunsoo Yi / Translated by Eunsoo Yi, Ru Kim, Yo-E R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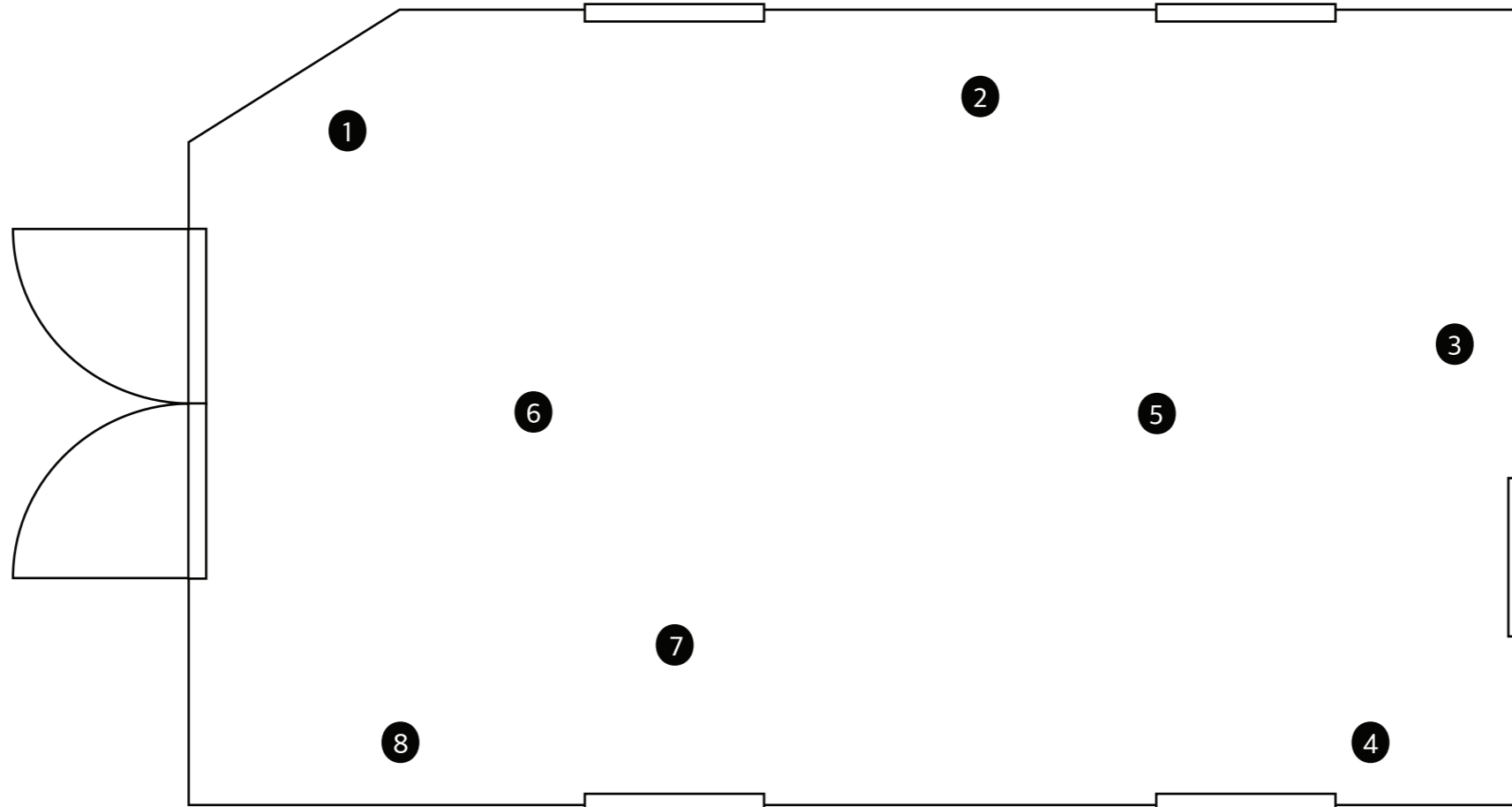
Organized by
 Unlearning Space
 Director Yo-E Ryou

Curated by
 Eunsoo Yi, Ru Kim, U Eun,
 Yo-E Ryou

Design Yo-E Ryou

Translation Eunsoo Yi,
 Ru Kim, Yo-E Ryou

Sponsored by
 Jeju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① Jane Jin Kaisen, *Of The Sea*, 2013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2' 15"
- ② Yo-E Ryou, *Why I Swim*, 2023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34' 36"
- ③ Eunji Cho, *Octopusy Ecstasy*, 2019
single channel video, color, stereo sound, 8' 8"
- ④ Haejung Jung, *Liquid Person*, 2021
single channel video, 3D animation, color, sound, 5' 22"
- ⑤ Ru Kim and Yo-E Ryou, *When we, too, would flow*, 2023
sound sculpture: sound, volcanic rock,
dimensions variable, looped audio
- ⑥ Ru Kim, *Eye, Nose, Mouth, Ear, Forehead, Chin,
Cheekbone, Eyebrow*, 2021-2023
text, XPS, laser engraving on acrylic panels,
manila rope, dimensions variable
- ⑦ U Eun, *White Or A Hundred Colored Water Forests*,
2022-2023, text, crochet with polyethylene,
dimensions variable
- ⑧ Haejung Jung, *How was it when mum gave birth
to me*, 2022,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4' 55"

Dates July 15th - September 30th, 2023
Sat, Sun, 2-6pm
Mon-Fri, by reservation

Location Haenyeo Storage space near Unlearning Space
10, Hadoseomun-gil, Gujwa-eup, Jeju-si

Artists Eunji Cho, Haejung Jung, Jane Jin Kaisen,
Ru Kim, U Eun, Yo-E Ryou

Oozing 雨徴: *Islands in Islands* takes place in a storage space of haenyeos during the off-season. The video works and installations resonate with the space filled with traces of haenyeo's labor and the scent of the sea, while being situated within various layers of social, historical, and local contexts. The space guides visitors to explore the world through visual, auditory, tactile, and olfactory senses, prompting contemplation of their own location and the place of others within the world.

The participating artists of *Oozing* 雨徴: *Islands in Islands* reflect on the boundaries that divide generations, species, and communities, and examine various ways to traverse them. ① Jane Jin Kaisen's *Of The Sea* captures the artist walking along a rugged coastline carrying discarded tewak (a tool haenyeo uses to float) and holding a copy of her grandfather's book, *Annals of the Jeju Haenyeo's Anti-Japanese Resistance*. This coastline is also the place where haenyeos marched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in 1931. The artist's urban attire, in stark contrast to the worn tewak, reveals the changes in life over time. Roaming the moss-covered rocks without a direction wearing heeled boots, the artist's struggle simultaneously diverges from and overlaps with the hard existence of the past through the mournful melody of *Song of the Haenyeo*.

② *Why I Swim* by Yo-E Ryou is a video essay that takes the form of a letter to a friend across the ocean following her journey of learning how to swim and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her neighbor haenyeos. Struggling with the social pressures and burnout from a childhood, the artist relocates to Jeju Island in search of a different way of life, and finally overcomes the fear through swimming and listening to the stories of the haenyeos while helping their chores. The artist's careful but sincere voice evokes a sense that possibilities for a different life are within reach, while the immersive imagery of the sea filling the screen leads the audience into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embodied by water.

③ *Octopusy Ecstasy* by Eunji Cho takes inspiration from an Indonesian myth that all babies are born with their twin octopuses. Evol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humans for 500 million years, the octopus has eyes rotating 360 degrees in different directions, and perceives the world through its eight legs/tentacles in place of its brain. *Octopusy Ecstasy* experiments with various ways of sensing the world following the octopus. Diverse angles of the camera go beyond the limits of visual information we usually take in. Unconventional movements of the artist and unfamiliar images of a surfer captured from a bird's-eye view, a woman with a hula hup, toys resembling eyeballs floating in a pool, and a deer staring at the camera interspersed throughout the video push the boundaries of our consciousness and prompt us to imagine a language and a primal connection with other species that we may have had at the moment of conception, but have since lost.

④ *Liquid Person* by Hyejung Jung recognizes the microorganisms living inside our bodies. Suffering from an unexplained illness called pityriasis rosea, the artist became aware of the presence of these organisms within her body. The artist's voice, speaking to entities

that are both herself and the other, diverges and converges repeatedly. Microscopic beings swimming within fluids also flow toward other bodies or the external environment-sea. The shape of corals intertwined with the organs hints at this interconnectedness. When the narration mentions Klein's bottle, a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the Möbius strip, a child made of water gracefully swims across the screen, guiding us to a cycle connecting substances, species, and generations.

⑤ *When we, too, would flow* by Yo-E Ryou and Ru Kim is a sound installation composed of conversations between rocks formed when the lava met the sea after Jeju's final volcanic eruption. The dialogue is accompanied by the sounds of water and the voices of the people of Jeju. Rocks express lamentation for their stationary existence over thousands of years, jealousy towards the ceaseless flow and mobility of water, love and hate towards humans who utilize them as needed, and longing for the sea creatures that once resided in their pores. The sound of the stones, which occupy a different spacetime from humans, echoes from structured and unstructured sculptures made of volcanic rocks gathered from the coast of Hado-ri. It leads us to reimagine the origins of the land and water we inhabit and our unique relationship with them from a completely different viewpoint.

⑥ In conjunction with *When we, too, would flow*, Ru Kim's installation *Eye, Nose, Mouth, Ear, Forehead, Chin, Cheekbone, Eyebrow* features transparent acrylic panels containing conversations of the waters that flow through the Han River, suspended on Manila ropes that have a characteristic of becoming tougher when wet. The waters of the Han River, contrasting with the stones of Jeju, become unintentional perpetrators leading people who throw themselves off of the Mapo Bridge to their deaths. The waters continue to flow incessantly, but they carry the memories of

all that has occurred. They reflect the logos of Samsu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heil Worldwide, an advertising agency affiliated with Samsung—entities that, through the "Bridge of Life" project, inadvertently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suicides—through mirrored images.

⑦ *White Or A Hundred Colored Water Forests* by U Eun shifts away from an anthropocentric viewpoint and reimagines the creation myths of our planet and its creatures from a new perspective. The artist views the process of self-propagation resulting from the interplay of gestures and movements among the creators, which she refers to as "water forests," as the origin of all life forms. The sacred acts of these vibrant water forests are juxtaposed with a sculpture made from interwoven plastic waste. Hung above the text, the sculpture creates a formal harmony while carrying contrasting meanings. This white plastic netting pulled out from the garbage transcends its own insignificance and claims its place within the web of the world, revealing itself to the humans who created it.

⑧ *How was it when mum gave birth to me* by Haejung Jung is a work that explores the experiences of the artist's grandmother, mother, and the artist herself during childbirth, returning us to the realm of familiar life from the exploration of mythology, water, species, and microorganisms. However, the work also overcomes our limitations and breaks taboos, as people only have an imagined understanding of their mothers' and grandmothers' childbirth experiences and feel uncomfortable directly questioning them, despite our intimate connection to the origins of our own lives. How was it when mum gave birth to me challenges the viewers with questions about how changes and actions can be possible in our daily lives, and how we can push the boundaries of our societal norms.

Written by Eunsoo Yi
Translated by Eunsoo Yi, Ru Kim, Yo-E Ryou